



○ 소 ○

당분간 상승세



새해 들어 산지 소 값이 한우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소 값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대목 물량 준비가 시작되면서 유통업자들이 물량확보에 나서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 중단 조치가 여전히 가격지지에 확실한 버팀목이 되는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조치 등 대형 돌발 악재만 없다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료값 인상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위생조건 개정 협상 등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한우값이 언제까지 상승세를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미국산 소갈비 수입 재개시 송아지 가격이 20~30만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어 공급과잉이 우려되므로 사육농가의 지나친 입식 자제가 요망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경매물량은 많아도 좋은 소가 별로 없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가격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가에서 고급육 생산의 노력이 부족한 가운데 중량만 채워서 출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더욱 고급육 생산에 노력하여 미국산 쇠고기가 유입 되더라도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 것이 향후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 돼지 ○

당분간 약보합세

“고돈가 시대가 막을 내린 듯하다”는 얘기가 실감되는 2007년도였다. 연초부터 '06년도보다 10% 이상 내림세를 보이던 국내 돼지거래가격은 연말에도 생체100kg 기준 20만원대를 넘지 못하는 흐름 속에 마감되어 육류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게 하고 있다. 사상 최대치를 갱신해 오고 있는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24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외식업소들의 돼지고기 취급비중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수입산 쪽으로 몰리며 나타난 이러한 현상은 2008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 및 유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도 우려되고 있다. 사료가격의 추가상승이 불가피한 가운데 질병피해까지 중복 악재로 작용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상당수의 양돈농가들이 적자경영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산쇠고기의 수입본격화가 예상보다 더뎠을 것도 예상되나 양돈 주변여건과 소비추이를 감안할 때 1월중에는 큰 폭의 반등세를 기대하기보다는 보합세수준에서 강보합세를 넘나들며 출하물량이 조절되는 국면을 기대함이 더욱 적절한 분위기이다. 지난 12월 ~2008년 2월의 산지 돼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21~22만원으로 전망된다.

(일간 미트뉴스 제공)

